

# 한국 소방산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얼마 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 보안·소방기기 박람회를 참관했던 소방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났다. 이 박람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기업이 많아지고 제품의 질적 수준도 높아져, 지금은 경보설비·소화설비·소방장비 및 건축방재분야의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매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올해의 경우 두드러진 점은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중국산 제품이 품질이나 기술 면에서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경보설비의 경우 건물 내 전력·냉난방·통신·엘리베이터·용수 등 유틸리티, 보안, 화재경보, 소화, 피난 및 제연비시스템 등을 통합한 단일 제어시스템의 제품이 두드러지고, 목재방화문의 경우 단순히 화재에 견디는 수준을 뛰어넘어 방법·방화문 및 장갑·방화문 등까지 기술수준이 향상되었다. 박람회에 출품한 우리나라의 기업이 삼공물산(주)와 (주)산청 2개 업체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람회에 우리나라에서는 50여명의 소방관계기관 및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참관하였는데 한 제조업체 사장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산 제품은 보잘 것 없어 그렇게 염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매년 박람회 참가 때 마다 기술 향상을 피부로 실감하는데 지금은 품질 면에서 한국 제품보다 앞서는 상황이다.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보다 값싸며 품질이 우수한 중국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며 위기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중국 소방산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하게 된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는 세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중국정부의 개방정책이 주된 요인이라 생각된다.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을 갖춘 소방 제품을 만들 정도로 중국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정책기조를 토대로 국가 기술기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신속하게 바꿔나갔다. 결국 자국산 제품의 법적 통과 기술요건(인증기준)을 대폭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소방산업계는 국제적 우수 기업과의 합작 투자와 더불어 선진외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유치하는 등 발 빠르게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동참하였던 것이며 이것이 결국 오늘날 중국 소방산업기술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산업적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그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만을 충족시키면 되는 제도상황에서는 품질수준의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란 곤란하다. 최소한



전국소방학과교수협의회  
회장 손봉세 교수

의 기준인 형식승인만 통과하면 시장에서 보장해주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투자에 대한 매력을 제조업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기술기준을 높이면 영세한 소방업체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표준의 국제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내 소방관련 제조업체의 보호를 위해 유지해온 검정관련 기술기준이나 제도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간 상호인증이 본격화되어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이 저렴한 중국산 소방용기계·기구등이 국내에 들어올 날도 이젠 멀지 않아 보인다. 그 때에도 국민들에게 身土不二를 외칠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절박한 가운데 더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소방관련 국가표준의 국제화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국제기준의 과감한 도입이 국내 소방업계를 살리는 길임을 올바르게 직시하여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존제품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제품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이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업체 부담은 25%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 소방업계는 이를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련전문연구기관에서도 국내 소방제조업체가 국제적 경쟁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